

주간변혁산별

제18호

■2008.8. 11(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단식 62일 촛불 100일 우리는?

노동운동, 촛불투쟁 결합 못한 100일 ... 산별교섭도 안개 속으로
이명박 지지율 10% 정면승부해야... 11일 기름촛불 · 15일 촛불집회 주목

1084일 62일 96회

기름 투쟁일과 단식일, 촛불집회 숫자다. 지난 8월 7일 금속노조 기름전자분회 촛불 문화제에 네티즌들이 참여한 이후 8월 11일(월) 7시 광우병대책위가 96번째 촛불문화제를 기름공장 앞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촛불투쟁의 상징이 된 아고라의 안단테가 단식농성에 참여한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촛불투쟁이 전선에서 결합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촛불과 비정규직 투쟁의 만남을 통해 기름 투쟁이 해결되리라 보지는 않지만 촛불투쟁이 비정규직 투쟁을 껴안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촛불과 비정규직의 결합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촛불이 미친소 미친교육 미친민영화와 함께 미친고용,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싸우는 것이 반이명박 투쟁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혁산별>은 노동운동이 촛불에 전면적인 결합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명박 당선으로 강력한 힘을 확보한 자본 진영을 상대로 중앙교섭 성사투쟁이 장기간 쉽지 않을 정세적 조건과 지난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이명박 지지 경향, 1사1조직 규칙개정에서 확인되었듯이 현장이 갈수록 보수화되는 상황에서 정권 초기부터 터진 사상 초유의 촛불투쟁과 이명박 10% 지지율은 자본과의 역관계를 조정할 유력한 수단이자 전선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촛불 외면해온 100일

조합원들 또한 전 국민적인 공분인

촛불투쟁에 결합하는 것이 시야를 넓혀내고 연대투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촛불전선을 최대한 확장하고 의제를 넓혀가는 수단도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결합을 통하여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이라는 물리적 파괴력의 결합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봤기 때문이다. 중앙교섭전선 또한 대중적 지지와 명분을 가지고 시기적으로도 합치된 촛불집회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금속노조도 5월 8일 첫 성명을 통해 촛불투쟁에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바 있으나 '립서비스'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잔업거부지침까지 거부하면서 촛불



투쟁을 외면했고, 실천은 6월10일 확대 간부 결합이 고작이었다. 정갑득 위원장은 잔업거부투쟁에 돌입하려는 기아차 지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취소하도록 설득까지 하였다고 한다. 노동운동의 대의를 벗어난 편의적인 전술 운용은 지엠대우 합의안의 파행과 현대차지부의 이기적인 대중추수주의에 밀려 결국 중앙교섭전선조차도 실종시켰다. 금속노조는 이제 안개 속을 걷게

되었다.

중앙교섭마저 안개 속으로

지난 6월 19일 대국민 사과에서 촛불을 바라보며 반성했다던 이명박은 7월 30일 시위진압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실상의 백골단인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했다. 8월 5일 촛불사상 최대인 167명을 연행, 그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검찰과 감사원, 경찰을 동원하여 KBS를 장악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지지율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사욕에 휘둘리는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미 민주주의는 죽었다. 국가 또한 이미 국민의 마음에서 죽었다.

뭐가 두렵겠는가?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새로이 조직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11일 기룡전자투쟁, 15일 대규모 촛불집회는 그래서 소중한다.

조합원 말고 자본을 협박하라

현대차지부, 중앙교섭 ‘조건부참가안’ 승인 강요 ... 금속쟁대위 “존중”

지난 9일(토) 대표 재벌신문 ‘조종’과 SBS에 실린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현대차지부의 이 같은 ‘항명(抗命)’은 지난 3개월째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안 처리에 막혀 자체 임금교섭과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 현안들을 논의도 해보지 못한 데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금속노조 내부갈등을 부채질했다.

9일 새벽까지 계속된 금속노조 중앙쟁대위에서 현대차지부의 의견접근안을 존중하고, 승인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자 ‘재벌씨라시’인 경제신문들은 “꼬리내린 금속노조...현대차지부 강경입장에 수용 선회”(매일경제)라며 금속노조를 비꼬았다.

현장과 산별노조를 분열 대립시키려고 했던 자본의 전략이 성공했다. 현대차 자본은 올해 교섭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핵심 관심사인 ‘주간연속2교대제’와 임금 등이 산별교섭 참가 문제 때문에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

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금속노조의 요구를 내걸고 자본을 공격하지도 못했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산별교섭의 중요성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조합원들은 자본의 언론의 분열 전략에 포위되고 말았다.

현대기아차 자본에 대한 투쟁을 거의 진행하지 않은 금속노조는 GM대우차지부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며 GM의 의견접근안(기본협약 일부 수용 등) 수용을 노조에 세 차례나 강요했다. 투쟁을 통해 자본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의견접근안으로 노조를 협박했던 금속노조 지도부와 똑같이 현대차지부 역시 ‘중앙교섭 조건부 참가서’라는 ‘거짓 약속’을 수용하라며 15만 조합원들을 협박한 것이다.

현대차지부가 7일 조합원에게 배포한 <교섭속보>16호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사측안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행도는 지부진한 교섭을 돌파하고 지부교섭에 집중하자는데

다수의 지부 교섭위원이 동의를 하였다. 하지만 금속노조에서 사측 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판단해 어제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지부가 앞장서서 노골적으로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의 갈등을 부채질했다.

GM대우차의 의견접근안이나 현대차지부의 조건부 참가안 모두 15만 산별교섭 성사라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에서 똑같다. 특히 현대차지부의 ‘조건부 참가안’은 지난 해 15만 조합원을 우롱했던 ‘확약서’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안이다. 더구나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인 현대차지부가 조직력이 취약한 GM보다 못한 안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4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피땀으로 쟁취해왔던 산별노조운동을 정갑득 집행부와 함께 후퇴시켰다는 비판 앞에서 현대차지부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연대 모범에서 '면피투쟁'으로

[금속산별7년평가](하)정치연대투쟁 ... 연대의 '전노협정신' 회복해야

현재 금속노조 지도부는 쫓불파업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떨어져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도 한미FTA 반대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갑득 위원장이 한 달 가량 감옥생활을 하는 등 30명이 넘는 지도부가 감옥에 다녀왔다.

열핏 보면 금속노조 정갑득 지도부가 연대파업으로 탄압 받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분명하다. 저들은 작은 파업 일지라도 강력한 응징을 통해 범국민적 저항으로 타오를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뜯어보면 억지로 한 파업이었고, 창피한 투쟁이었다. 2007년 한미FTA 반대파업은 한 현장 대의원의 제안을 정갑득 위원장이 반대 하다 원안대로 통과된 경우다. 2008년 쫓불파업은 5월말부터 제안된 투쟁을 미루고 미루다 합법적인 임단협 기간에, 그것도 단 2시간만 진행한 파업이었다. 기류를 필두로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은 '면피'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2005년까지 금속노조는 전노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역과 전국에서 연대투쟁의 모범을 보였으나 15만으로 규모가 커진 후 2

년	정치연대파업	완성4사	지부파업
2001	2.28 대우차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쌍용	경주지부(세광)
2002	2.26 4.1 발전노조 연대파업 11.5 근기법개악 및 경제특구법 반대 총파업	현대 기아 현대 기아 쌍용차	충남지부(세원테크)
2003	1.16 두산중 배달호 열사 총파업 11.6 12 한진중 김주익 열사 등 총파업(2일)		대구(대동공업)
2004	11.26 비정규직확산법 저지 총파업	현대	대전충북(하이닉스)
2005	4.1 비정규직확산법 저지 총파업 12.1 2 8 비정규직확산법 저지 총파업(3일)	현대 쌍용 기아(8일만)	경남(통일중공업) 울산(대덕사) 충남(대성엔피씨) 대전충북(하이닉스)
2006	3.15 하이닉스-기륭 등 비정규4사 연대파업 2.27 3.2 1.14 1.21 비정규법저지 총파업(4일) 11.11~12.6 비정규직확산법 저지 총파업(8일)	현대 기아 현대(기아는 2일)	전북-인천(KM&I) 경남(GM대우창원 비정규직) 경주(광진상공, 동국대청 소노동자)
2007	6.25~29 한미FTA 저지 총파업(3일)	현대 기아(2일만)	울산지부(삼성하이비트) 충남지부(경남제약) 경기지부(이젠텍)
2008	7.2 광우병식고기 저지 총파업	현대 기아	

년도 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의 투쟁만을 진행하고 있다.

2001~5년 ... 완성차 인해도 4만 금속노조는 총파업

2001년 2월 8일 출범한 금속노조는 대우차 1750명 정리해고에 맞서 2월 28일 출범 20일만에 한국중공업, 삼호 중공업, 영창약기 등 56개 사업장 3만 여명이 정치파업을 벌였다. 2002년에는 2월 26일과 4월 1일 발전노조 연대 파업의 선두에 금속노조가 있었으며, 그 해 11월 5일 근로기준법(주5일제) 개악과 경제특구법 반대 총파업을 현대 자동차노조 등과 함께 했다.

2003년부터는 1년에 수차례가 넘는 정치연대파업을 벌였다. 1월 9일 두산 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에 맞서 3만 금속노조는 분신 7일만인 16일 연대파업을 성사시켰다. 그 해 임단협이 마무리된 후 10월 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자결을 시작으로 계속된 분신과 열사투쟁에 맞서 금속노조는 ▲10월

29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 ▲11월 3~4일 파업찬반투표 ▲6일 1차 총파업투쟁 ▲12일 2차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열사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2004~5년에도 정치연대파업은 계속됐다. 비정규직 확산법 등 근로기준법 개악에 맞서 2004년 11월 26일(6시간)과 2005년 4월 1일(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고, 8월 26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총파업을 전개했다.

비정규직법 저지를 위한 2005년 민주노총 12월 총파업은 현대, 기아 등 완성4사가 빠졌지만 4만 금속노조는 도망가지 않았다. 현대, 기아가 모두 빠진 가운데 12월 1~2일 3만 금속노조가 나섰고, 기아차와 함께 12월 8일 또 다시 파업을 벌였다. 2004년 11월 26일부터 5차례의 총파업을 벌여 전노협의 연대정신을 온 몸으로 보여줬다.

2006년 ... 한미FTA저지 12일 파업·하이닉스 등 연대파업

2006년은 정치연대파업의 해라고 불

릴 만했다. 금속노조는 기륭, 하이닉스, 현대하이스코, 등 비정규4사의 투쟁이 장기화되자 대의원대회에서 3.15 연대 파업을 결의했고 이를 위해 김창한 위 원장이 26일, 전체 지부장단이 15일 단식농성까지 벌였으며 2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연대투쟁을 성사시켜냈다.

비정규직확산법을 막기위한 상반기 2.28, 3.2, 4.14, 4.21 4차례 정치총파 업, 비정규직과 한미FTA저지를 묶어 함께 진행된 11.11~12.6 8차례 총파 업에도 금속노조는 총 12차례의 총파 업을 늘 선봉에서 이를 수행했다. 하반기 파업에는 완성4사 중에서 현대자동차만이 온전히 함께 했고, 기아는 2일 만, GM대우와 쌍용차는 단 하루도 파 업을 하지 않았다. 특히 11월 30일 국 회에서 날치기로 비정규확산법이 통과 되자 금속노조는 그 날 저녁 6시 위원 장 명령으로 총파업을 선언했고, 이는 밤 12시를 넘어 현대차의 파업을 끌어 냈다. 12월 1일 금속노조는 충청권까지 국회 앞으로 집결해 쇠파이프를 휘두르 며 격렬하게 싸웠다. 연대정치파업에 대한 산별노조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였 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정치연대파업 외 에도 금속노조는 ‘지부총파업’이라는 이 름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의 문 제를 지부 전 조합원이 함께 싸워 해결 해나가는 연대의 정신을 보여줬다. 2001년 세광 탄압에 대한 경주지부 연 대파업을 시작으로 대전충북, 울산, 경 기, 전북, 경남, 부산양산, 경주, 포항 등 대부분의 지부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부파업을 진행 해왔고, 지역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2007~2008년 ... 연대의 싹종과 형식화

산별노조 연대의 모범은 정갑득 집행

부가 들어선 2007년부터 후퇴하기 시 작했다. 2006년 10차례가 넘는 정치총 파업을 벌여 한미FTA와 비정규직확산 법을 막아왔던 노동운동진영은 2007년 시작부터 청와대 근처까지 진격하는 등 격렬한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한미FTA를 강행했고, 급기야 4월 2일 허세욱 열사 가 분신자결로 이에 맞섰다. 민중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요구했으나 노동운 동은 이에 화답하지 못했다. 금속노조 현장과 중집, 중앙위 등 각종 회의에서 도 한미FTA반대 연대투쟁이 필요하 다 는 요구가 계속되었으나 정갑득 지도부 는 이를 외면했다.

결국 4월2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에서 한 대의원이 제안한 한미FTA저 지를 위한 6월 말 일주일간의 총파업 안전이 제출됐고, 집행부의 격렬한 반 대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통과됐으며 GM대우, 쌍용차 등을 제외한 10~11만 조합원이 역사적인 파업에 함께 했다.

2008년 촛불투쟁 외면은 그 절정이 었다. 5월 2일 여중고생들을 주축으로 한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작한 반이 명박 투쟁은 3개월 동안 87년 6월에 버금가는 촛불항쟁을 만들어냈다. 5월 말 쇠고기 고시 강행 시점부터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금속노조 의 연대투쟁과 파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갑득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6월 초 민주노총의 지침 을 받은 기아차지부의 2시간 잔업거부 투쟁마저도 정갑득 위원장은 직접 전화 를 걸어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중앙집 행위에 제출된 6.10 2시간 파업마저도 거부하고 간부상경투쟁으로 축소시키고 말았다.

6.16 파업찬반투표 직후, 6월말 장관 고시 시점 등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 정사항도 지키지 않으며 파업을 질질

끌어 합법적인 입단협 기간인 7월 2일, 그것도 2시간 파업으로 끝냈다. 전 국 민이 간절히 원하는 파업,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연대의 기회를 이렇게 날려 보냈 다.

기륭전자를 비롯해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금속노조의 대응 역시 전 조직적 인 투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형 식적인 지원, 생색내기 투쟁만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기회로 활용되 었던 중앙교섭 파업은 2년 연속 무기력 하게 끝났고 말았다. 기륭 파업 1080 일, 단식 60일이라는 숫자가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증거다.

정갑득 집행부 2년 진정한 연대는 실 종되고 투쟁은 형식화되고 말았다.

진정한 연대의 복원을 위하여

20년 전 전노협은 연대가 무엇인지 를 투쟁으로 보여줬다. 전노협 시절 옆 사업장 조합원은 우리 조합원이었고, 그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웠다. 정권과 자본은 이런 전노협을 인정하지 않았고, 강력한 탄압을 벌였지만 전노 협은 1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연대와 투 쟁의 이름을 선연히 아로새겼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총인 코사투 (COSATO)에는 ‘한 사람에게 대한 부당 한 대우는 모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다’(injury to one injury to all)라는 글귀가 썩어있다. 산별노조의 정신이다. 한 노동자, 한 사업장에 대한 탄압을 15만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함께 싸우려는 연대의 정신. 이 정신이 실종된다면 산별노조는 변혁을 위한 도 구가 아니라 현장 투쟁을 억압하는 도 구가 될 수밖에 없다.

산별탈퇴하면 1년 연봉 준다?

자본, 산별노조와 현장 갈라치기 ... 노조간부, 인기 영합주의 극복해야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산별노조에게 주어진 '미션'(임무)이 만만치 않다. 자본의 저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자 대중의 의식 속에서 산별노조가 '희망'으로 자리잡기까지 헤쳐 나가야 할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자본은 속성상 경영권을 침해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노조자체를 부정한다. 다음 단계는 어쨌든 노조를 막지 못할 바에는 기업의 틀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기업별 노조'를 선호한다. 기업별노조는 자본에게 '우리끼리 잘해 보자'는 노사협력, 회유의 기회를 남겨둔다. 그러나 산별노조는 교섭권, 쟁의권, 체결권이 회사 밖에 있고 전 사회적 영역의 정치투쟁을 지향하므로 통제하기 어렵고 불안하다.

산별노조를 불인정하는 것이 내부 성원들의 반발로 현재의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키면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만, 산별노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최근 군산에서 신규 가입한 대한기초소재는 조합원들에게 기업별 노조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를 인수할 쌍용이 계약서에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과 그 댓가로 고용안정 그리고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내걸었다.

그 외 거의 대부분의 신규 사업장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한 회유는 거처가지 않을 수 없는 필수 코스다. 금속노조내 최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차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참가 요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임금 등 사업장내 현안 문제에 대한 교섭이 지연된다며

조합원들의 이해와 산별노조를 분리하는 전술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조합원 의식속의 산별노조 양면성

조합원들은 위기에 봉착한 기업별노조운동을 뛰어넘고자 하는 산별전환운동에 2/3의 동의라는 대중적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2001년 금속노조가 출범하며 중앙교섭을 통해 쟁취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배가압류금지 등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산별노조가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고용안정과 사업장에서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작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주기 바란다.

280개가 넘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산별노조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동의 목표에 입각한 사업과 활동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사업장별 이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업장별 이해를 넘어선 전체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가지고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측면이다.

4만의 금속노조 시절에도 중앙교섭에 결합하지 않는 지역의 대기업 문제가 있었고, 사측의 회유에 넘어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사업장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중앙교섭을 매개로 한 전 조직적 투쟁과 산별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조직적 기풍으로 자리잡으면서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비정규직이 바라보는 산별노조

조직율이 10.3%에 불과한 하위 조직

을 국가에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별노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은 기업별로 대안을 만들기 어렵고 산별노조 중앙의 강력한 방침과 법, 제도개선이 맞물려야 가능하다고 보는 이치다. 그러나 산별노조다운 전 조직적 지원, 대기업의 입장을 넘어 설 수 없는 중앙의 한계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산별노조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앙교섭에서 쟁취한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이를 적용받는 사업장내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환호하는 것에 착목할 수 있다. 2만의 중앙교섭 참가사업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산별노조의 임무다.

다른길은 없다

산별노조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대표체로 거듭나기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가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산별노조운동이 지속되는 한 기업별노조로의 회귀하자는 자본의 또다른 주장은 계속될 것이며, 조합원의 의식을 흔들 것이다. 조합원들의 의식과 판단은 간부들의 활동방향과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산별노조가 우리 사업장 문제해결에 보탬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문제를 뛰어 넘어 산별노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활동해 나가야 한다.

“노조 병들어 있는 것 아닌가”

인터뷰 기륭공대위 집행위원장 송경동 시인 ... 연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단식 60일을 넘기면서 기륭투쟁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계속되는 폭염과 최장기 단식으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송경동 시인은 기륭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시민사회 종교단체까지 지지,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지지를 넘어 온 몸으로 연대를 실현해왔던 ‘기륭공대위’의 집행위원장이자 그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늘 함께 해왔다. 2006년 4월 시청에서 열린 허세욱 열사 장례식 때 낭독된 “별나라로 가신 택시운전사께”라는 시에서 “우리고 당신을 죽였다 진정한 민중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면서도 무능한 우리의 운동이 당신을 죽였다”고 울부짖으며 많은 노동운동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금속노조의 한 간부는 “1990년대 박노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송경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터뷰를 계속 고사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활동가들에게 감히 얘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 기륭에 언제 처음으로 결합했나?

= 2004년 기륭 투쟁 초기부터 계속 다녔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까지 맡아서 활동한 건 올해 3월 중하순 경이다. 지난 겨울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을 때 ‘고공농성 100일 문화제’ 때 방문했는데 공식적인 문화제는 그 때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었다. 그 뒤

뉴코아 300일 문화제 때 시낭송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마침 지역에서 기륭 투쟁이 1000일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1000일에 맞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연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었고, 1000일 투쟁 기획단을 구성하는 과정부터 함께 하게 됐다.

- 공대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비정규직 투쟁은 사회연대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적의식 속에서 공대위 소속 단위를 사회 전체적으로 넓히려고 노력했다. 민미협(민족미술인협회), 작가회의, 문화연대, 문화일꾼이 한 축이었고, 종교단체와 지식인 단체가 또 다른 축이었다. 과거와 달리 노동관련 관계가 끊겨버린 종교단체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민교협 등 지식인단체에 제안해서 공대위를 만들게 됐다.

- 기륭공대위가 단순한 지지와 연대 ■ 넘어 실천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 과거 시민사회단체의 대책위 성격은 주체들의 투쟁을 보완하고 엄호하는 정도였고, 관성으로 굳어졌는지 언제부터인가 싸움은 주체가 하고, 나머지는 지원만 하게 됐다. 저는 결의도 실천도 함께 하는 투쟁공대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안했다. 기존의 운동 관성이 쉽게 깨지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주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사회단체 자신이, 이게 나의 일이고, 나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 그동안 어떤 투쟁들을 만들어왔나?

= 우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지금 광화문이 90회 넘었을 텐데 기륭에서 비정규 촛불 문화제를 70여회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 투쟁뿐만 아니라 일상 사업으로 참여의 장을 열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왔다.

파업 1000일에 맞춰 사회공동행동 주간을 만들어 8일간의 사회공동운동을 했다. 노동운동 선배들이 주체가 되는 날, 범종교인들이 연대하는 1000일 기도회, 문화예술인, 여성운동가들, 구로지역 노동열사모임이 주체가 되는 날 등 의미있는 8일간의 사회공동행동을 했다.

문화예술인들이 ‘비정규 철폐 천막미술관’을 만들었고, 미술인들 100여명이 참여하는 결개그림을 제작했다. 명동에

서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미술전을 준비해 4천만원의 판매기금을 모았다. 단식 45일차에 맞춰 1045인이 시청에서 하루 동조단식을 벌였고, 8보1배로 청와대 동십자각 앞까지 진출했다가 다섯 명이 연행됐다. 1~2분만 빨랐어도 청와대 앞까지 갔을 텐데 아쉬웠다. 우리는 연좌하고 진행 연행되려고 했다. 기룡도 기룡이지만 비정규직이 선도적이고 결연한 투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기룡 공대위 이름으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우리가 책임지고 집행할 테니 비정규직의 날을 설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전체가 집중하는 날로 잡히면서 성사되지 못해서 아쉬웠다.

- 최근에 한나라당 대표까지 만나면서 교섭 재개■ 끌어내기도 했다.

= 교섭국면이 정체되면서 한나라당 타격이 필요하다 싶어 7월 10일 국회에 들어갔다. 한편에서 청원하러 간거나, 부탁하러 간거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기룡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화가 필요했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정치권이 나서도록 계기를 만드는 투쟁이었다. 종교인들까지 같이 갔다. 금세 끌려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교인들의 힘이 있었다. 우리는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 기룡 문제 답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했다. 많은 논란 끝에 열린 국회 개원날이었고, 여당 대표실에 들어간 것 등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서울노동청장과 기룡이 합의를 만들던 계기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사측이 교섭해태를 하고 한나라당이 뒤통수를 치면서 교섭이 막히고, 금속노조도 휴가 가고, 어떤 계기 마련이 안되면서 침울했었다. 주변에서 정리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연대단위들

도 확 떨어지면서 다시 계기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속을 각오하고 다시 한나라당 들어갔고, 연행되어 나온 것이었다.

- 기룡투쟁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 금속노조가 중심을 세워줘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게 잘 안돼서 안타깝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공조직은 비판도 가능하지 않은 무슨 성역이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이번 기룡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투쟁을 통해서 대부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만났다. 그런데 참 만나기 힘든 게 금속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

사실은 노동운동이 이런 사회단체들은 조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변혁운동이란 게 노동조합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회 각계가 지원 연대로 서로 조직하고 후원하고, 노동운동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혁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단위가 스스로 조직해서 지원하겠다고 쫓아다니는데도 그걸 전체의 힘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전술적 논의, 전략적 판단이 부재한 것 같다.

관료화된 조직일수록 절차와 형식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노동운동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 그러면 연대하겠다. 나에게 계기를 주지 않으면 함께 하기 힘들다.” 이런 사고들이 있다. 굉장히 계산적이다. 특히나 정파운동 내에 이런 경향들이 있다. 이게 우리 정파 소속이나에 따라 참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다.

-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도 쫓불

도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 쫓불은 미친 쇠고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면서 알게모르게 위기관과 삶 자체와 생존이 힘들어진다는 절망감 속에서 뚫고 나온 것이었다. 그런 좋은 계기에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은 그런 사람들의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앞장서서 선도하지 못했다. 책임감이나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사실 대중들이 누군가라도 나서서 대중의 불만과 위기감을 터뜨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힘있게 변혁적 힘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노동운동, 변혁운동이 자기 역할들을 잘 선도적으로 해나가면 큰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봤다. 평범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고 봤다. 투쟁을 조직해주고, 공안탄압으로 나서는 정권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싸워나갈 때 촛불시민들은 노동운동과 만날 수 있다.

-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것보다 투쟁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일상적인 사업들도 필요하겠지만 기룡과 관련된 싸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투쟁들이 필요하다.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의 내용과 체계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 뜻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사회적 연대나 운동이 되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노동조합주의 운동에 갇히는 부분이 있다. 국민과 함께 하고 해서 언론이나 대중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변혁의 과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노동운동이 그런 것들을 선도해갈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새로운 전술적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다.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석유곡물 다국적기업이 배후

[특집 경제위기]② 곡물·유가 폭등원인 ... 노동자대중의 생활은 빈곤으로

석유제왕 록펠러는 불황기만큼이나 호황기를 두려워했다. 호황기가 불황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IT산업의 거품경제 붕괴로 주택 및 주식, 소비시장이 활성화됐지만 이제 그 대가는 신용위기와 더불어 원유 및 곡물가격 폭등을 낳았다.

파탄난 신자유주의 농업정책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수입액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만 해도 곡물가격은 20% 상승나 상승했다. 특히 세계 최빈국들은 40%나 증가한 169억달러에 달한다.

곡물위기 혹은 식량위기는 최근 몇 년간의 일이다. 지난 20세기 내내 식량은 오히려 과잉생산돼 있었다. 곡물위기의 배경에는 지난 20년간 동안 이뤄져 왔던 농업분야의 신자유주의 열풍이 있다.

1992년부터 WTO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농업무역 개방 및 자유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존재했다.

최근 '가난감소프로그램'이라고 불렀던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은 1980년대 이래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세계 시장에서 시장용 작물이 높은 가치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했다. 1990년대말 개발도상국의 80개 나라들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예컨대, 커피는 원래 고가격의 작물이었다. 그러

나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00년 80개 나라가 커피재배를 했고, 10만 평방 킬로미터나 뒤덮혀 일년에 5.7백만톤이나 생산됐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정을 지배할 수 있는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돌아갔다. 월마트, 테스코(한국의 홈플러스), 네슬레, 몬산토, 스타벅스 등은 1990년대 이런 농업 양극화 정책의 수혜자였다. 1990년대 말까지 케냐의 신선한 채소 84퍼센트는 단지 6개의 농장이 공급했다. 영국에서 5개 다국적 대형마트는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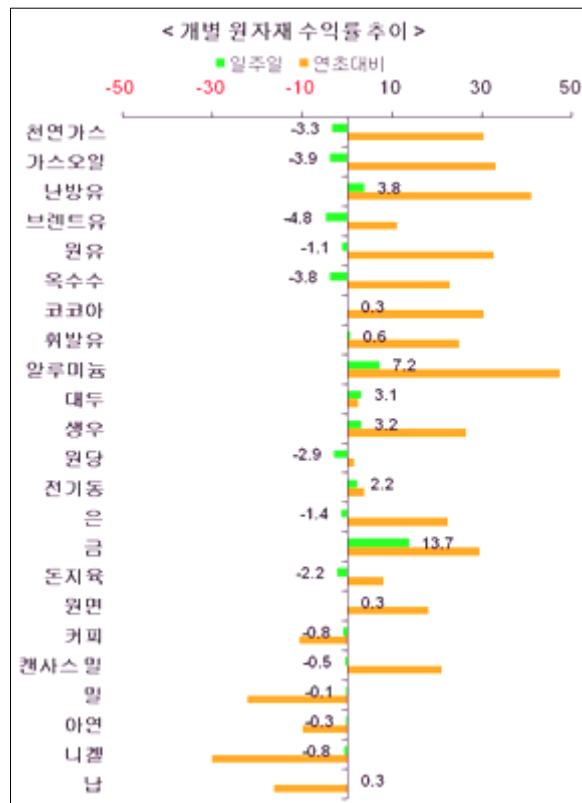
반면 농업 공급망의 바닥에는 1만5천명의 소생산자, 수백수천의 농민, 땅없는 농업노동자들 등은 수출상품인 채소를 재배하고도 겨우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임금을 받는다. 심지어 세계2위의 쌀 생산국인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달간 식량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지만 대부분 농민들은 이익을 거의 얻지 못 했다. 이들은 식량 가격이 낮았을 때도,

높았을 때도 생활 수준의 향상을 얻지 못 했다.

IMF의 이런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농업 발전의 실패 뿐 아니라 개도국의 세계은행에 대한 식량원조와 부채의 의존성을 더 강화시켰다.

식량 투기로 상황은 더 악화

투기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2001년 IT산업의 거품붕괴로 주택과 은행의 투기꾼들은 식량 단기



말라위의 담배, 브라질의 오렌지, 부르키나 파소의 면화, 케냐의 신선한 채소와 꽃 등으로 이어졌다.

시장용 단일작물재배는 재앙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커피 작물은 2004년 현재 지난 20년 동안 소비보다 생산이 빨라 무려 2배나 늘어났다. 그 결과 전체 커피 가격은 2/3으로 떨어졌다.

반면, 농업의 이익은 전국적 연결망을 장악함으로써 상품 시장과 가격 결

시장으로 몰렸다. 식량상품시장에 대한 투자량은 지난 3년 동안 2조5천억달러로 무려 5배나 뛰었다. 식량가격은 특히 2005년 이후 급속한 상승세를 탔다.

그 이유는 식량가격 급등의 또다른 요인인 원유 가격 급등 때문이다. 농업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비료, 살충제 가격 상승은 곡물가격 상승으로 작용했다.

바이오 생산 역시 식량 공급의 미래를 악화시켰다. 심지어 세계 에너지의 1%가 바이오 비료 생산에만 사용됐다. 이는 식량가격 폭등의 1/3 정도의 책임이 있다.

한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빈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예컨대, 오늘날 중국은 매년 4천만톤의 비료를 사용하고 미국은 1천9백만, 인도는 1천6백만 톤을 사용한다. 그 결과 세계 곡물 생산은 2004년에 20억톤이 증가했다. 이것은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전체 곡물 생산량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곡물가격 폭등은 생산이 소비를 따라잡지 못 하는 식량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분배 실패로부터 온 셈이다.

원유가격 상승은 어디에서 왔는가

원유가격 상승 역시 시장경제의 불안정성과 투기성으로 인해 생겨났다.

지난 일본에서 열렸던 주요8개국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 주장에 반대하며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급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중국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 소비량의 7.8%에 불과하다. 인도 소비량과 합해도 전체 소비량은 10.7%에 그친다. 반면 미국의 소비량은 무려 25.4%로 압도적이다.

문제는 원유가격이 독점적 원유회사

인 슈퍼메이저라 불리는 엑손모빌, BP, 셸 그리고 토털, 세브론, 에니, 코노코 필립스 등 7대 원유회사의 독점가격과 원유선물시장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계 석유매장량의 5%, 세계 석유 생산의 15~18%만을 장악하고 있지만 원유가격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유) 평균가격이 2007년 1월 대비 배럴당 71.21달러 상승할 때 투기자금은 40.3% 기여했고, 달러화 약세는 고작 4.5%, 수급상황은 1.8%기여했다. 전 세계의 과잉유동성 자금이 원유 선물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매수액이 2007년 세계 석유시장의 공급부족분(6,789.0만배럴)의 2배에 육박했다. 다시 말해, 원유 재고가 수요에 비해 2배나 쌓여 있다는 뜻이다.

이런 투기의 대표적인 기업은 1990년대 후반 거품경제의 대표주자였던 미국의 엔론사이다.

엔론은 가장 낙관적인 예측으로 미래수입을 부풀려 투자를 유인했다. 즉 GM자동차 새 모델이 디자인하는 시점에서 이미 새 차에 대한 미래의 모든 수익을 낙관적으로 가정했다. 엔론은 실적을 위해 회사간 부당거래와 부채 은폐 등을 하면서 실제 자산을 계속 부풀렸다. 그러나 회사의 가치 창출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엔론의 주가치는 2000년 8월 90달러이상에서 다음해 11월 1달러 이하로 곤두박질했다. 결국 엔론은 파산신청을 했고, 이로써 약 1천억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런 투기 방법은 여전히 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기지' 위기가 시작되자 주택시장에 투자했던 금융기관 및 투기꾼들이 원유시장으로 몰렸다. 즉 달러는 팔고, 원유는 사들였다. 지난 2

년간 원유회사와 정유회사들이 미친듯이 원유를 사재기하자 가격은 상승했고, 가격 상승심리로 또다시 가격은 상승하는 꼴이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돈을 벌었다. 골드만삭스는 주요 선물거래소 설립자이면서 투자자의 60%가 자기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이용했다. 지난해 에너지 부문에서만 벌어들인 순이익이 무려 15조원이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금융회사와 유착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가의 투기성은 더욱 강화됐다.

이런 가격상승의 대가는 노동자대중들이 치른다. 서유럽 전역에 걸친 휘발유 세금은 최종 가격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휘발유 세금의 주요 요소는 불평등세인 소비세이다.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는 아프리카, 아시아 저발전국 대중들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등 전세계적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전세계적 물가인상을 유발하는 곡물 및 원유가격 상승은 소수 다국적 기업들의 부를 독식하도록 하면서 노동자대중의 생활임금을 줄여들게 하고 있다.

그림 1 : 식품 가격 지수

출처 :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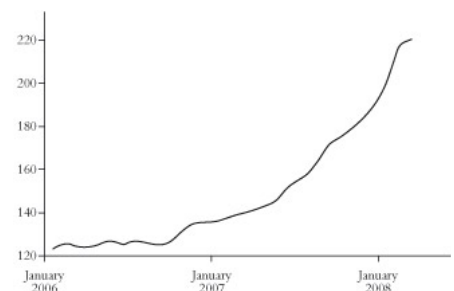


표 1 : 선택 물가 (2005년 = 100)

상품	1998	2005	2008년3월(추정)
주요 상품	48	100	181
석유	25	100	191
식량	92	100	170

출처 : 국제통화기금 (IMF)

노동자 뉴스 80만명이 본 사연

공공운수연맹 블로그 성공기 ... 새로운 대국민선전전 방식 적극 고민해봐야

노동조합이 만든 블로그의 방문객이 80만명을 넘었다. 이 블로그를 방문한 80만명은 은연 중에 '공공운수연맹'을 알게 됐고 노동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소중한 성과다.

공공운수연맹이 만든 블로그 '공공운수노동자'(http://kptu.tistory.com)는 개설한지 불과 석달이 채 안돼 100만에 가까운 방문객을 모았다는 것은 노동조합도 네티즌과 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80만명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80만 장의 몇 배에 이르는 유인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몇 배의 인력을 길거리에 동원해서 '대국민 선전전'을 해야 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조직적인 피로도와 예산은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블로그 '공공운수노동자'(http://kptu.tistory.com)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

지하철 기관사 동행취재 20만 보다

공공운수연맹의 블로그를 네티즌들이 찾은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먼저 '다음' 블로거뉴스의 편집 의도에 충실한 것이다. 다음 블로거뉴스는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시의성 있는 기사를 편집해 다음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고 있다. 여기서 블로그 제작자가 노동조합이든 당이든 사회단체이든 개의치 않는다. 네티즌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말이다.

그래서 노동조합만이 가능한 현장 취재와 속보를 누리꾼의 입맛에 맞게 가

공해 제공했다. 그 실례로 서울 지하철 기관사의 애환을 담은 '기관사 동행 취재'는 노조 관련 단일 기

사로 20만회가 넘는 깜짝 놀랄만한 조회수를 기록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일 때는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의 동행취재와 파업 일기를 게재해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시류에도 편성해야 한다. 촛불집회 당시 지하철 경복궁역 무정차를 지시한 사람이 서울메트로 사장이라는 것을 폭로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모았다.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접근하지도 않았다. 만화와 자체 제작 동영상(UCC)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 것도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 중의 하나다.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안타까운 현실을 서정적으로 담은 만화인 '연두 이야기'는 매니아층을 만들기도 했으며, 위트와 유머를 섞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를 담은 UCC 시리즈는 그 자체로 수십만 명이 '플레이' 했다.

금속노동자의 블로그를 만들자

그렇다면 금속노동자들의 블로그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내가 만약 금속노동자의 블로그를 만



든다면 가정해 본다면 현대자동차의 조립라인을 취재할 것이다. 조립라인의 단순 업무를 가감없이 보여줄 것이다.

기흥지회 노동자들의 24시간을 밀착 취재해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금속노동자들의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사진 찍어 올리는데도 좋다. 정규직과 다른 비정규직의 작업복을 보여 주는 것은 어떤 유인물보다 비정규직의 실상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블로그에 올리고 누리꾼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말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맞춤법은 틀려도 상관없지만 딱딱하고 운동권적인 어투는 버려야 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생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글이라면 네티즌의 동감을 얻지는 못한다.

자, 이제 금속노동자도 블로그의 세계에 한번 빠져 보자.

공공운수연맹 윤준호